

고전 목록의 창조적 재구성을 위하여

- 우리사회와 고전의 변모 -

김 경 희 | (주)지식산업사 대표

고전이란 오랜동안 사람들이 많이 읽어왔고, 또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철학 역사 등의 작품을 일컫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고전에 관해 논의를 한다면, 케케묵은 지난 것들을 새삼 들추자는 일도 아닐 것이며, 과거에는 어떤 고전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되짚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한국, 오늘의 세계는 그 어느 때와도 다르다. 21세기 또는 2000년기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 때문이 아니라 안팎의 여러 상황은 대전환이라고 불러야 할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새 판짜기, 새 틀짜기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인이자 세계인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 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기에 온갖 힘을 다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넛힘까지 동원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오늘과 내일의 세계에서 한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전 또는 고전 읽기의 새로운 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차축시대 천재들의 말과 행동을 문자라는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인류초기의 고전들이다

인류에게는 기원전 8 2세기 약 500여 년 동안 동서양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에 없었던 뛰어난 천재들이 나타났다. 동양의 인도에서는 불타가, 중국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같은 종교 철학 사상가들이 태어났고,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중동에서는 구약 성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같은 예언자들이 태어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문자라는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이른바 인류의 초기 고전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 인류가 고대의 문화유산으로 치며, 그 뒤에 나온 모든 종교와 철학 등 사상의 원형이 되었는데, 이무렵 인류는 그들 천재들에 의해 아리송한 신화의 시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고 반성의식을 통해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仁) 의(義) 예(禮) 지(智) 같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태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간을 아스퍼스는 차축시대(車軸時代)라 부르기도 했다.

어떻든 이 차축시대를 전후하여 인류는 글자

가 없는 시대 즉 원시시대를 벗어나서 글자가 있는 기록의 시대 곧 역사시대로 넘어오면서 노예제 사회를 바탕으로 고대 문명을 연 것인데, 크게 보아 힌두교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文明, 유교 도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文明, 유대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뒤의 이슬람교) 중동文明, 그리스 로마文明 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중세에 접어들면 지배종교와 그를 뒷받침한 지배 언어를 짝지은 몇몇 문명권이 나타났다. 중동에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아랍어 문명권, 인도에는 힌두교(불교)를 중심으로 한 산스크리트 문명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는 유교 중심의 한자문명권, 서유럽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 문명권, 유럽에는 동방정교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어 문명권이 나타났다.

중세 동안에 각 문명권에서는 그들의 종교 언어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고전적인 작품들이 생산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각 문명권에 강제 포함된 수 많은 민족들은 한편으로 그들의 민족어로서 보편주의에 맞서 고전적 작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그리고 농노를 기초로 한 이 중세의 인류 문명은 봉건적 신분질서 속에서 지역적으로 분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적이어서 문명권 사이에는 바로 인접한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섭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구 내지 구미자본주의 세계는 일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인류 역사의 중세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곳은 서유럽의 기독교 라틴어 문명권이었다.

기독교의 엄격한 신 중심주의에 오랜동안 억눌린 서유럽인들은 동방무역으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벌인 것이다. 르네상스란 인간적이고 합리성을 옹호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앞장 선 것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던 인문학자들이었기에 르네상스를 인문주의 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떻든 이 르네상스 운동에 이어 종교 개혁이 지중해 외곽에서 일어났고 거의 동시에 전개된 지리상의 발견 등으로 서유럽의 중세 봉건 체제는 서서히 무너져 몇 단계의 자본주의 혁명(상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근대를 맨 먼저 연 것이다.

그런데 근대란 중세의 엄격한 신 중심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상공시민이 앞장서 봉건제 사회의 신분 질서를 벗어나 왕권을 정점으로 한 봉건 귀족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를 되찾자는 시민주권론이 영국에서 비롯,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등으로 발전하여 시민적 사회혁명 곧 민주주의가 보편화해 갔다.

서유럽(나중에 미국 동참)에서 시작한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문명은 급속하게 나머지 세계로 확장되고 세계 지배로 나선다.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그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점령과 아프리카의 분할, 중동 인도 및 남아시아의 식민지화, 대양주의 점령, 중국의 반식민지화 등 전 세계는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제국주의화는 (이들에게 배운 후발 일본의 지배는 예외이다) 20세기 중반까지 극성을 떨었으며 아직도 그 형태는 변형된채 엄존한다.

어떻든 온 세계는 구미 자본주의 문명에 축

발된 근대(문명)화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서구 내지 구미의 세계는 인류 전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나머지 세계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인들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제도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류전체의 꿈이나 이상의 기반이 되고 나머지 주변 세계의 어떤 문화적 유산도 낡아서 버려야만 할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서구인들이 근대철학의 출발로 일컫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는 교회의 간섭을 벗어나 과학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무엇이든 의심하고 따지는 비판정신의 기초이었는데, 이는 다름아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의 연속이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성적 자아(自我)를 강조하는 이 서구의 근대문명은 과학기술과 함께 승승장구하여 한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고(발전사관) 따라서 서구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여 서구의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역사는 세계의 철학, 세계의 문학, 세계사로서 인류의 기준인양 서구문명 중심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런 속에서 19세기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트 등의 몇몇 이단들이 나와 정신에 대해서 물질, 이성에 대해서 감성 같은 가치관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큰 틀에서는 서구 중심주의의 편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서구 중심의 근대문명은 지구자체의 멸망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인류는 아직도 근대문명의 한 가운데 있으

나, 벌써 근대문명은 도처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찍이 서구의 중심에서 스펡글러 같은 서구의 몰락을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철학인 ‘합리적인 이성의 무한한 발전’이 벽에 부딪친 것이다. 계급의 첨예한 대립, 1·2차 세계대전으로 집약되는 전에 없던 대량 학살과 파괴가 꼬리를 이었으며 수십억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수 민족과 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굶주림과 착취, 비인도적 대우에 치를 떨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동력이자 인류 소망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량파괴의 무기생산과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한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 끝없는 인류의 욕망 실현은 인류의 터전인 지구 자체의 멸망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근대문명 자체의 구조적 대전환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면한 인류사의 총체적 위기 극복은 고전목록의 창조적 재구성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이 글의 첫 머리에서 다소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고전읽기와 인류의 대전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한국인, 그리고 배넷햄 쓰기가 그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가깝고 좁아 보인다. 그런 속에서 오늘의 지구 저편의 문제가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문제로 직결된다. 최근의 광우병 파동이 그 좋은 보기가 아

닌가 한다.

오늘과 내일의 한국인은 동시에 세계인이다. 부분이자 전체인 것이다. 전체인 세계 인류의 문제가 남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분인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으면 우리 한국인의 문제가 전체인 곧 세계인류의 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역은 역시 우리이고 남들이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남들이 해 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 그들은 우리의 일을 거든 대신 그들이 우리 몫을 거의 다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제 세계는 여러면에서 지난날 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주체가 똑똑하면 작다고 큰 놈이 함부로 넘보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는 한 두 나라의 패권주의로 오로지 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다극주의(多極主義)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덤비면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작은 힘이라도 합치면 세를 이룰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 도처에 우리 한국인이 할 일이 널려 있다. 우리의 무대가 커진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주변이었다. 고대 중세의 동아시아에서 작은 한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서세동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되었다가 구미 제국주의의 아류인 일제의 식민지로 마침내 떨어져 근대화마저 왜곡된 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직도 통일된 근대 민족국가조차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오랜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보아 다시 동북아

시아의 한 중심으로,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한 중심일 수 있다. 강대국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라라도 문화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당당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세계 인류의 한 중심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세계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지 않을 수 없으며, 세계 문화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그 중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다시 고전 읽기 문제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 세계의 고전 목록에는 서구문명 중심주의, 여타 문명과 비서구 자국 문화 비하 주의가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어 있었다. 우리 시대의 빼어난 인문학자 조동일 교수가 주장하듯, 인류가 당면한 근대문명의 한계 극복은 이성과 감성 그리고 통찰을 총동원하여 중세문명의 재인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류 살리는 새로운 문화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비서구(非西歐) 문명권 내지 여러 민족의 문화유산을 살살이 뒤져 필요하다면 오늘의 고전으로 다시 살려 읽어야 하며, 작게는 우리 전통 민족문화 속에 잠자고 있는 유산을 발굴하여 세계 인류의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또한 더 없이 소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인류 전체는 동과 서,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유용한 모든 슬기를 다 쏟아 눈앞에 다가오는 인류사의 총체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새로운 문명의 탄생의 계기로 삼기 위해 동서의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고전 목록의 창조적 재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